

존 웨슬리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남모세*

【 국문초록 】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잠시만 버티면 넘어갈 수 있는 질병이 아닌, 앞으로 인류가 안고 살아야 할 새로운 바탕과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직장, 학교 등의 일상생활 전체의 패턴을 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교회운영과 설교, 전도의 구조와 방법까지도 모두 바꾸어 놓았다. 부득이 반강제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모든 설교를 유튜브를 통하여 전송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회중들을 만나는 빈도는 극도로 줄어들고, 익명의 인터넷 유저(User)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되었다. 결국 이는 많은 설교자들로 하여금 탈회중적인 설교, 익명의 회원들로 부터의 인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조회수와 댓글로 평가받는 설교를 양산하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던 교회는 미래조차 보이지 않게 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를 타개할 방법 중의 하나로 존 웨슬리의 목회관과 설교문 작성의 원리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학자들, 목회자들 마다 웨슬리를 보는 관점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자는 웨슬리의 목회와 설교가 공적인 차원보다는 보다 개별적인 차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사회와 교단 전체 보다는 당장 자신이 만나고 있는 바로 그 성도들의 문제위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가라는 측면에서 웨슬리를 이해하고 연구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하고, 작은 회중이 큰 회중으로 부흥하면서, 개별적인 성결은 사회적인 성결이 되어있었고, 회중 개인의 변화는 사회의 전체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구성하게 되었다. 최소한 웨슬리는 이 변화와 부흥을 선도하였고, 경험하였으며, 스스로를 웨슬리안이라 부르기를 원하는 우리는 나라의 변화, 세계의 변화를 오늘 우리가 섬기는 작은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부흥의 원천은 무엇보다 웨슬리의 설교에 있었음을 전제하고, 그 동안 수천, 수만의 학자들, 목회자들, 웨슬리안 성도들은 그의 설교를 연구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이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의 연구에만 치우쳐 있었기에, 능력있는 콘텐츠들이 병 안에 담긴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자기 PR시대, 좋은 콘텐츠 PR시대'를 맞아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의 콘텐츠들이 웨슬리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 설교문 안으로 전달되었는지 분석하

* 서울신대학교, 실천신학, 설교학

• 논문 접수일: 2021년 08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21년 11월 02일

• 논문 심사일: 2021년 10월 25일

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실행하여, 한국교회 강단이 회복하고, 성도들이 다시 모이며, 웨슬리가 경험한 부흥이 다시 한 번 재현되기를 바란다.

주제어: 코로나19, 뉴노멀시대, 웨슬리안, 귀납적 주제설교, 회중중심적 설교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길어지는 코로나19가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이 되어 버리고,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이기를 바랐던 교회와 강단의 붕괴상황을 뉴노멀(New Normal)¹⁾로 받아들이고, 안착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용한 돌파구를 존 웨슬리의 설교에 대한 설교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찾아보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지금처럼 압도적으로 암담한 현실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 교회들이 택한 최선의 대책은 일단 유튜브(YouTube) 또는 줌(Zoom)을 통하여 영상으로 설교를 내보내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교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고, 유일한 대책이자 대안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교인들을 중심으로 개교회 성도들에게 영상설교가 익숙해지도록 하는 데에 교회들은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설교영상에 붙게 되는 조회수과 댓글들이 담당교역자의 설교를 넘어서, 그 목회자의 인기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처럼 비추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결국 담임목회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특정위치에 사는 특정회중들에게 맞춰진 설교가 아닌, 자신의 설교를 듣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일반적이고,

1) 오현철, “뉴노멀 시대 설교의 변화”, 『복음과 실천신학』 119(2020), 117-44.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에로 집중력이 점차 옮겨지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자신에게 맡겨진 특정 회중들의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전문의들은 사라져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것을 하는 각종 의학 개론과목들을 담당하는 의대교수들이 되어가고 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은 동네 가정의학과처럼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영적인 질병들을 다룰 수 있는 의사이기도 해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동네의 특정주민들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서 두루 나타나는 특정질병들에 대해서만큼은 매우 전문적인 특정 질병 군들의 전문의가 되어야 한다. 물론 특수 전문의로서의 기능에 집중하다 보면 토마스 룡이 말한 ‘목양자’ 메타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는 김운용이 표현한 것처럼 이러한 방향은 개인들의 곤경 상황에 대해 해결책과 회복이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주어질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공적 영역과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차원이 약화되기 쉽고, 복음을 개인적 차원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약점을 가지게 된다.²⁾ 이러한 경우에 많은 목회자들이 개교회의 회중들에게만 함몰된 나머지 그들의 세세한 문제들을 놓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많은 경우 답을 찾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회중들 까지도 깊은 영적인 패닉에 빠질 수도 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가장 위로를 많이 경험해왔던 시대를 찾으려면, 성도들이 들던 말든, 고상한 ‘말씀의 전령’들이 전문적이고 어려운 단어들로 교회를 잠재우던 정통주의 시대도 아니고, 교회는 신음하며 죽어 가는데, 이제는 설교자

2) 김운용, “증언의 관점에서 본 설교에 대한 신학적 이해: 토마스 룡의 설교 신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3(2021), 98.

3) 토마스 룡/ 정장복, 김운용 역, 『증언으로서의 설교』 (서울: 쿤란출판사, 1998), 59.

보다 유튜브 스타들이 더욱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의 시대도 아니었다. 본 연구자는 위로와 부흥의 말씀이 있던 시대를 웨슬리 시대에서 발견하였고, 공적인 차원에서 조금은 더 개별적인 차원으로의 목회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에 대한 대안으로서 웨슬리의 설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한 가지 집중할 부분은 웨슬리의 설교방법 그 자체이다. 감리교도들을 비롯하여 존 웨슬리의 후예를 자처하고 있는 몇몇 교단들이 존 웨슬리에 대하여 매우 집중력 있는 연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다양한 방향과 방법으로 웨슬리가 연구되었지만, 가장 심도있는 수준에서의 연구논문이 주로 박사학위논문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여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웨슬리에 대한 연구는 조직신학적인 관점에 특화되어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⁴⁾ 그리고 이러한 웨슬리에 대한 그 동안의 조직신학적인 연구들이 학교와 세미나, 학술지, 신학잡지 및 각종 특강들을 통하여 최소한 감리교 내에서는 비교적 잘 전수되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⁵⁾, 오히려 지금의 웨슬리안들의 교회와 강단이 웨슬리처럼 부흥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웨슬리가 그의 신학과 철학으로만 부흥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물론 조직신학적인 연구가 완성하지 못한 웨슬리에 대한 연구가 비단 설교학적인 연구뿐 만은 아닐 것이고, 설교학적인 연구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1900년도 후반의 웨슬리안이라 부를 수 있는 많은 교회들이 내적, 외적 큰 부흥을 경험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내용과 전달’이라는 스피치의 양 날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달’, 즉 웨슬리의 설교에서 그동안 거의 연구되지 않은 설교학적인 측면에서의 특

4) 조직신학 43편, 설교학 1편, 전도학 4편, 구약학 1편, 교회사 1편, 예배학 2편, 역사신학 4편 등.

5) 남모세, “존 웨슬리의 설교와 현대적 적용에 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130.

징들을 분석하고 정리함으로 이전보다 한층 더 웨슬리적인 부흥을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한 걸음 가까이 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논문에 임한다. 이를 통하여 보다 균형 잡히고, 보다 신속한 웨슬리적 회복과 부흥을 견인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화된 한국교회 강단의 회복을 기대한다.

Ⅱ. 웨슬리의 목회와 부흥

1. 웨슬리의 목회와 중심

웨슬리는 영국국교회의 미움과 시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까지 회중들의 삶 안으로 비집고 들어갔고, 그들의 고통의 장소에서, 그들의 신음소리 위에서, 그 정점에는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의 무덤위에 서서까지 설교를 해야 했던 회중의 삶에 깊이 참여한 목회자이자 설교자였다.⁶⁾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슬리의 설교 150편을 내용상으로 분석해 볼 때에, 그의 설교의 50%정도가 구원론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는 철저한 구원론 중심의 주제 설교자였다. 그러다보니 굳이 성경전체를 골고루 다루지 않았고, 성경전체를 가르치는 것도 목표가 아니었으며, 언제나 당장 눈앞에 있는 회중이 누구인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면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였다. 이는 구약이 신약보다 12권이냐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을 본문으로 설교한 횟수가 구약보다 3배나 많다는 점, 마태복음과 로마서 본문을 설교한

6) Boraine, Alexander L., "The Nature of Evangelism in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John Wesley", (Ph.D. diss., Drew University, 1969), 22.

횃수가 구약성경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횃수 전체를 더한 것 보다 많은 점 등에서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나아가 그의 설교내용 뿐이 아니라, 설교제목들만 보더라도 그의 설교가 얼마나 해당 시기, 해당 지역, 해당 성도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담을 내놓기에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⁷⁾

당시에는 누가 보아도 웨슬리는 모두의, 모두를 위한 설교자가 아니었고, 당장에 그의 눈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성도들만의 질문 앞에선 회중 중심적 설교자처럼 보였다. 그러나 웨슬리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지나간 지 300여년이 지난 지금, 그는 오히려 시대를 아우르는 설교자, 개인과 상황을 뛰어넘는 대중들의 설교자로 불리우고 있다. 웨슬리가 이끈 사회적 성결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사회보다는 지역의 개개인들에게 외쳐지는 소리였고, 개개인들의 성결들이 모여져 큰 불이 되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악한 사회적 관습이 끊어지고, 공중적 죄악이 사라지는 일이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이 모여 사회가 되고, 개인의 죄악이 모여 사회의 죄악, 사회의 죄악이 연속되면, 역사의 죄악이 되기 때문이다.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보다 대중적이고, 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시각에 집중하여 유튜브 스타가 되기를 꿈꾸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지금 웨슬리안 목회자들이 다시 집중하고 회복해야 하는 회중은 혹시라도 내 설교를 좋아할지도 모르는 가상의 회중이 아니라, 당장 내 손에 닿아있는 죽어가는 내 교회 성도들이다. 이때에 단기간에는 내가 매일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만 살아나고, 내가 만나고 있는 그 회중들의 교회만 부흥할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지

7) ‘협담의 치료’, ‘금전의 사용’, ‘생활방식의 개혁’, ‘조지핍필드 목사의 서거에 대하여’, ‘최근 북미에서의 하나님의 사역’, ‘옥스퍼드의 위선’, ‘비난받는 대중오락에 대하여’ 등.

8) 변영서, “십자가의 전략”, 『신학과 세계』 20(1935), 10.

속되고, 깊이가 더해지면, 결국에는 웨슬리가 경험한 큰 단위에서의 사회적 회복, 공중적 부흥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2. 웨슬리가 경험한 부흥

웨슬리는 2가지 측면에서의 부흥을 모두 경험하였다. 첫 번째로 웨슬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자체가 변화되는 부흥을 경험하였고, 다음으로는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부흥을 경험하였다. 가장 건강한 부흥이라 함은 바로 이러한 내적인 변화에서 외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 전 시대를 통틀어 우리 모두가 원했던 바로 그 부흥의 표본일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혹시나 설교의 유튜브 조회수는 높아질지는 몰라도, 출석, 헌금, 전도, 신앙등 전반이 약해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 필요한 부흥일 것이다.

먼저 웨슬리는 그의 설교를 통하여 회중들의 ‘내적인 부흥’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말씀을 들은 회중들, 더 자세히 말하면 ‘사람’ 그 자체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그들의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켰고, 무기력하던 당시 교회들을 갱신시켰으며, 죄로 뒤덮였던 사회를 정화하기 시작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마티아스 조이스(Mattias Joyce)라는 사람은 19세에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으며, 후에 웨슬리의 설교자들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는 가톨릭교도로 살아오면서 이미 성경에 대해 알았고, 어느 정도 경건한 삶의 모습도 있었지만,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비로소 자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웨슬리의 설교를 통해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구원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평생 말씀을 전하며 살았다. 존 넬슨(John Nelson)이라는 사람은 늘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1739년 무어필즈(Moorfields)에서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과 위안을 경험하게 되었다.⁹⁾ 또한 엄청난 술고래였던 이발사중의 한명은 웨슬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 그 때부터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술만 끊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술을 원하는 마음마저도 없애주셨다고 고백했다. 그는 앞선 인물들과는 다르게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았다고 한다.¹⁰⁾ 특이할만한 점은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웨슬리는 외적인 부흥, 숫자적인 부흥, 사이즈의 부흥도 경험하였다. 메소디스트의 시작점을 여러 곳에서 학자들이 찾지만, 1739년말 브리스톨에서 8-10명의 사람들이 웨슬리를 찾아와서 앞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일 것을 정한 그 모임을 첫 시작점으로 본다면, 약 8명에서 시작한 메소디스트 회원은 1767년 의사록(Minutes)에 따르면 회원이 25,911명이 되고, 1791년에는 무려 136,62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¹¹⁾ 외적인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메소디스트 회원숫자의 변화일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부흥을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현금, 각종 봉사활동의 여부보다도 여전히 등록성도수, 출석성도수 일 것이고, 웨슬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부흥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9) John Telford, *Wesley's Veterans: Lives of Early Methodist Preachers Told by Themselves*, vol 7, (Salem, Ohio: Schmull Publishers, n.d.), 191.

10) W. Reginald Ward and Richard P. Heitzenrater, eds.,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vol. 19, *Journals and Diaries IV*,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2), 3:383.

11) 알버트 아우틀리/조종남 역, 『웨슬리 설교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88.

이 외에도 웨슬리의 설교를 통하여 일어난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의 놀라운 기록들은 그의 일기와 여러 의사록들을 넘어 수많은 당시의 주변 인물들과 기록들에서도 충분히 발견된다. 역사 속에서 종종 순간적인 인기와 퍼포먼스로 대중들을 압도하고, 운집하게 만든 설교자들이 더러 발견되지만, 언제나 그러하듯, 내적인 부흥이 수반되지 않은 외적인 부흥은 한 세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종말을 고하였다. 그러나 웨슬리를 통하여 나타난 부흥은 힘 있게 다음 세대를 리드하였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였다.

Ⅲ. 웨슬리의 설교전달

그 동안의 웨슬리에 대한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던 스피치의 양 날개 ‘내용과 전달’에서 웨슬리의 설교에 나타나는 ‘전달’면에서의 특징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내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종종 수단의 가치와 능력은 필요 이상으로 폄하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과오를 범해왔다. 그러나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 PR (Public Relation)이 능력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는 자기 PR의 이유와 자기 PR의 수 천, 수 만 가지 방법론을 쏟아내는 각종 서적들의 판매량만 보더라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책들은 우리가 아무리 내적인 콘텐츠가 충분하고, 검증 가능한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사실과 가치를 외부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알리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콘텐츠는 무용지물이 되고 사장(死藏)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웨슬리의 부

흥은 콘텐츠만의 승리라고 볼 수 없다. 웨슬리의 능력은 그의 내적인 영역, 즉 콘텐츠에 분명히 우선적으로 있어야 했겠지만, 그 콘텐츠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글로 옮겨냈고, 표현하였는지는, 설교학적인 눈을 가지고 그의 설교를 자세히 분석하지 않으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아쉬운 것은 설교를 전달함에 있어서 설교문의 분석과 함께 그의 실제 설교하는 모습, 억양, 제스처(gesture), 발음, 톤, 빠르기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의 설교밖에 없음에 그의 설교문에 한정하여 분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1. 웨슬리 설교의 내용적인 특징

웨슬리의 설교문에 나타나는 내용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웨슬리 설교의 내용은 매우 철저히 성경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후대에 의해서도 철저한 ‘성경적 설교자’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현대에 주류가 되고 있는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에 신앙의 중심을 두지 않고, 인문학이나 공동체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성경을 여러 권위들 중의 하나 정도로 그 위치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에¹²⁾ 현재의 교회들에게 강력하게 요청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웨슬리는 『표준 설교집』(Standard Sermons)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한다. “나는 한 가지 일 즉 하늘가는 길(the way to heaven)을 알고자 한다. 저 행복한 언덕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를 수 있는지를 알고 원한다. 하나님 자신은 겸손히 그 길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스스로 자

12) 최영현, “다문화 상황에서 이머징(교회운동) 설교의 가능성과 신학적 의미”, 『제5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14), 376.

신을 낮추셨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가 하늘로부터 오셨으며, 그는 그것을 한 권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 오! 그 책을 나에게 주소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그 하나님의 책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위한 충분한 지식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한 책의 사람(homo unius libri)이 되게 하소서.”¹³⁾ 그리고 *The New Testament With Explanatory Notes*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서는 하늘의 지혜가 솟아오르는 천상의 샘이며 그 물의 참맛을 아는 자는 아무리 지혜와 학식이 뛰어나고 경건한 사람이 쓴 책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책보다 성서를 더 귀중하게 여기게 된다.”¹⁴⁾ 나아가 그의 일기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다. “나의 근원은 성서이다. 그렇다. 나는 성서 하나밖에 모르는 성서 고집쟁이(a bible-bigot)이다. 나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성서를 따른다.”¹⁵⁾ 웨슬리의 설교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주제설교의 요소를 따르는 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의 설교의 내용이나 소스들이 자칫 성경 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차용되었을 것으로 오해될 수 있지만, 사실 그의 설교는 주로 강해설교에서 나타날 법한 보수적인 특성들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웨슬리의 설교들은 설교 한 편당 구약성서본문은 5.1개, 신약성서본문은 23.8개를 평균적으로 인용한 것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성경본문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경우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은혜의 수단”에서는 본문이 100개 이상 인용되었고, “성서적인 기독교”에서는 129회 인용되었다.¹⁷⁾ 웨슬리의 설교는 성경을 통

13) Albert C. Outler, ed.,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ed.*, vol. 1-4, *Sermon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4-1987), 3.

14) John Wesley, *The New Testament With Explanatory Notes* (London: Nicholson, n.d.), 7.

15) John Wesley, *The Journal of the Rev. John Wesley, A. M.* Edited by Nehemiah Curnock, 8vols. (London: Epworth Press, 1938), 38. (이하 *Journal*로 약함)

16) 박문석, “강해적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실천적 방향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72(2020), 147.

째로 옮겨놓은 거대한 성경해설서로 보일 정도인데, 그의 설교 메시지는 성경에서 시작하고, 증명하며, 결론을 내리고, 적용에 이르게 한다. 웨슬리가 아무리 회중중심적인 설교자라 할지라도 회중들의 삶에 대한 모든 문제의 원인도 성경에서 근원을 찾아내고, 구체적인 삶의 해결책 또한 모두 성경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하인리히 불링거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는데¹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이려면, 웨슬리처럼 성서를 완전히 하나님의 책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결책도 그 안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 웨슬리는 전체적으로 교리적인 대주제를 핵심에 두고 설교를 준비하였다. 웨슬리는 그의 노년에 메소디스트의 생명인 <교리와 정신 그리고 훈련>을 확고하게 붙들지 않는다면, 메소디스트도 결국에는 능력이 없이 형태만 유지되는 죽은 종파(dead sect)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¹⁹⁾. 회중들을 위하는 목회자라면, 힘들더라도 반드시 교리에 대한 집중력과 에너지를 유지해야함을 천명하였다. 나아가 웨슬리의 논증적이고 논리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성서를 읽는 눈은 대부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에너지를 쏟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경말씀들을 교리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고, 이를 동일한 눈으로 회중들에게 설명하는 데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표준설교집 뿐만이 아니라 그의 설교 150편 전체를 보더라도 대주제에 있어서 ‘교리’적인 설교로 분류될 수 있는 설교가 94편에 이르게 하였다. 사실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리’라는 단어부터 이미 회중들의 삶과는 매

17) John Wesley, *Wesley's Standard Sermons, ed. and annotated by Edwin H. Sugden, 3rd. ed., 2vols.* (Nashville: Lamer and Varten, 1954), 30.

18)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in *The Book of Confession, pt. 1,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Louisvill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2002), 53-54.

19) Rupert E. Davies,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ed., vol. 9, The Methodist Societies: History, Nature and Design* (Nashville, TN: Abingdon, 1989), 9:440.

우 이질적일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우리는 이 부분부터 적극적으로 불식시켜야 하는 필요가 있다. 독보적인 회중중심적 설교자 웨슬리가 그의 회중들에게 설교할 때에 ‘교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의 의미는, ‘교리’야말로 회중들의 삶에 가장 분명한 답과 해결책을 줄 수 있는 통로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고, 회중들이 구원받고 싶어 하는 태도가 나타날 때에, ‘율법’을 설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설교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깨닫고, 치료약으로서의 ‘복음’이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이다.²⁰⁾ 이 과정이 아무리 고단하고, 잠시는 어려워 보일지라도 교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회중들과 함께 함으로써, 설교자를 통하여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웨슬리는 설교주제에 있어서 ‘구원’ 또는 ‘구원론’에 집중하였는데, 이는 성경 각 권을 균형 있게 다루기보다는 특정 성경본문, 방향, 신학, 성구들에 집중하게 하였다. 그의 설교 주제들은 50% 정도가 회개, 거듭남, 의인, 신앙, 성화, 완전과 같은 구원론과 관련된 주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앞서 밝혔다. 특별히 표준설교집에 나타나는 주제의 빈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표준설교집은 평신도 설교자들이 설교를 배우고,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하는 설교의 콘텐츠를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표준설교집의 설교에는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편적인 설교주제가 어떠하여야 하는지 그의 신학과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의 표준설교집에 한정해서 그의 성경의 각 권별 사용 빈도를 살펴보다도 그는 여전히 구약보

20) D. M. Lloyd-Jones, *Romans: An Exposition of Chapter 3:20-4:25, Atonement & Justification*, (Grand Rapids: Ministry Resources Library, 1970), 25.

다는 신약에 비중을 훨씬 많이 두고 설교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매우 집중하여 사용했는데, 무려 1362회 사용을 한다.²¹⁾ 설교본문 뿐만이 아니라 인용구에 있어서도 본문의 양적인 균형은 사실 고려되지 않고 있음이 매우 명확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웨슬리의 설교만큼은 최소한 성경전체를 고르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에 관심이 없다. 그는 단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할 것인가’라는 목표 한 가지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였다. 이 말이 뜻하는 것은 결국 모든 설교는 반드시 ‘구원’을 목표로 하고, 내용에도 ‘구원’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중들의 삶은 매일 매일이 ‘구원’이 필요한 거칠고 악한 현장에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그의 설교는 대부분 구원론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 메시지를 회중들의 삶 안에 투영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그의 설교주제는 회중들의 삶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었다.²²⁾ 이를 통해 교리들은 회중들의 삶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었고, 조직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이라도, 방법 면에 있어서는 매우 치밀하고 논리적인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그의 설교시작과 끝 전체에 걸쳐서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귀납적인 순서와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설교 150편 전체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지가 분명히 보

21) 마태복음은 (1362회)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히브리서(965회), 요한복음(870회) 누가복음(853회) 고린도전서(779회)를 즐겨 인용하였다. 한편 구약에서는 이사야서가 668회로 가장 많이 인용되었고, 그 뒤를 이어 시편(624회) 예레미야서(208회)가 빈번히 인용되었다. 단일 성구 가운데 웨슬리가 즐겨 인용한 것으로는 마가복음 1장 15절로 190회를 인용하였으며 예베소서 2장 8절(133회), 갈라디아서 6장 14절(129회) 마태복음 16장 26절(117회)등도 빈번히 인용되었다. 구약에서도 이사야 55장 7절(112회), 예레미야 8장 22절(120회) 이사야 55장 6절(90회) 호세아 14장 4절(87회) 시편 141편 3절(72회)등이 즐겨 사용되었다.

22) 예를 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회개, 칭의, 중생, 성화, 믿음, 영생, 천국, 지옥, 기도, 교회, 예배, 사랑, 정의, 성결, 행복, 성숙, 인생문제, 신앙문제, 사회문제와 같이 주제를 분류해서 다양한 주제의 설교가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이는데, 주제에 따라 각각 분리된 독립된 대지보다는, 귀납적인 흐름을 따라 앞선 대지에 대한 귀납적인 결과로서 따라오는 대지가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웨슬리설교의 전체적인 구성을 볼 때에 그가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²³⁾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설교의 본문보다는 당장 만나야 하는 회중들에게 당장 필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주제를 선택하였고, 이는 설교의 클라이막스에 ‘그래서 이 말씀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놓이게 하였다. 웨슬리의 설교는 ‘설교를 듣는 회중에게 있어서 이 설교가 그들의 삶에 필요한 주제인지’, 또한 ‘이 주제가 그들에게 이해가 되고, 적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 나아가 ‘시기적으로 적합한 설교인지’, ‘설교가 행해질 장소가 설교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지’등을 고려해 가며 설교의 주제와 본문을 택하였기 때문에 웨슬리의 설교는 그 당시 회중들에게 더할 수 없이 매력적이고 자신들의 관심사를 정확히 꿰뚫은 명쾌한 설교 일 수밖에 없었다.²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주변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한 능력이자 바로 그 매력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으면서도 이미 모여진 인파를 떠나시기도 하셨는데, 그 기준은 ‘천국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였다.(마태복음8장 참고).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곳으로 다니셨고, 천국복음은 언제나 회중의 삶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 사마리아여인의 우물가가 그러하였고, 삭개오의 집안이 그러하였고, 베드로의 배안이 그러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패턴이고, 웨슬리가 이어받은 패턴이라면, 메소디스트/웨슬리안은 이 패턴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웨슬리안은 회중들의 삶 안에서 질문을 하고, 다시 구원론

23) *Journal*, 38.

24) *Journal*, 454.

으로 답하는 것을 회복하여야 한다.

2. 웨슬리 설교의 전달방법상의 특징

웨슬리는 설교를 준비하고, 구성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시대 유튜브스타를 지향하는 설교자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과하고 정리되지 않은 퍼포먼스들은 지양하였지만, 반대로 매우 다양한 설교 안에서의 수사학적 기법들을 동원하여 그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웨슬리의 설교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수사기법이 있다면 이것은 ‘논쟁적 기법’일 것이다. 이미 웨슬리가 설교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다루면서 언급했듯이, 그의 설교는 매우 논리적이고 논증적이며, 한 챕터에서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귀납적이었다. 이러한 설교적 특성을 가진 설교자들에게서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바로 이러한 ‘논쟁적 기법’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자신의 주제를 논리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식할 수밖에 없는 소스가 바로 자신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다른 학자나 설교자의 논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꼭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누구든지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논리들을 미리 차단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충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글을 통하여서도 잘 드러난다. “여기에 대해 본격적인 논쟁을 할 여지도 없이 바울은 그와 같은 주장을 간단히 부정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바울이 말했을 때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오직 종교 의식상의 율법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상상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말로 충분히 논박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종교의식상의 율

법을 굳게 세웠습니까? 그가 그런 율법을 세우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점에서 모든 사람이 그의 생각과 같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곧 크리스찬이란 이름을 붙이고 산 사람들 가운데도 성도들에게 일단 주어진 믿음은 율법 전체를 무용하게 만들도록 되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열정이 지식에 의한 것입니까? 그들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살펴본 것일까요?...”²⁵⁾ 바울의 주장을 꺼내놓고, 결국 바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입증하길 원하면서도 스스로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만한 반대편 논리들을 들여다 놓는다. 그리고 이 둘을 부딪치게 만들고, 이러한 충돌 뒤에 나타나는 웨슬리의 결론은, 반박의 여지가 없거나 덜한 보다 강력해진 메시지로 귀결된다. 이것이 역사가 왜 그토록 ‘헤겔의 정반합의 원리’를 중용하고, 사랑했는지 또 한 번 웨슬리를 통하여 증명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둘째, 웨슬리는 설교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주제에 대하여 회중이 보다 집중력을 가지고, 설교에 참여하도록 ‘의문문’을 만들어 계속해서 던진다. 이를 테면 “믿음으로 세워진 율법” 설교에서는 의문문이 무려 34번이나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쟁을 할 여지도 없이 바울은 그와 같은 주장을 간단히 부정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용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²⁶⁾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사람들의 열정이 지식에 의한 것입니까? 그들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살펴본 것일까요? 그 둘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하고 어느 한 가지를 파괴하는 것이 결국 그 둘을 동시에 파괴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까요? 또한 도덕

25) 조종남, 김흥기, 임승안 외, 『웨슬리 설교전집 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351.

26) Ibid., 351.

법을 폐기하는 것이 믿음과 율법을 함께 폐기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며 또한 우리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²⁷⁾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 의문문을 연속해서 3번, 4번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이고, 많은 경우 8번을 연속해서 의문문을 던지기도 한다. 의문문은 특별히 논증적인 기법을 잘 사용하는 설교자들, 그리고 회중들을 설교 안으로 참여시키는 데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설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회중들이 설교 중에 자신에게 던져진 질문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해당 주제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설교에 보다 흥미를 가지도록 돕는 데에 아주 주효하다.

셋째, 논증적인 설교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설교자들 전체에게서 나타나는 ‘설득기법’은 그의 모든 설교에 걸쳐서 나타난다. 웨슬리는 지나친 몸짓이나 과장한 소리를 내는 등의 설교를 좋지 않게 평가하였고, 시세로의 수사학이 말하듯이, 웅변의 기술보다는 웅변의 내용을 통하여 청중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²⁸⁾ 이는 설교를 ‘선포’로 이해하는가, ‘설득’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설교방식이었었는데, 웨슬리가 설교를 ‘설득’으로 이해했다는 분명한 기록은 없으나, 그의 설교전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선포’에도 분명히 무게가 있었으나, 방점은 회중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설득’적인 관점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그는 자신이 들고 있는 교리들에 대하여 치열하게 스스로 검증을 해야 했으며, 주변의 신학

27) Ibid., 352.

28) 나광현, “포스트모던 상황에서의 설교를 위한 대화적, 협력적 소통을 통한 메시지 창안 (invention)이론에 대한 연구”, 「제5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4), 229.

들과 계속되는 논쟁과 대화들을 쉬지 않아왔다.²⁹⁾

이러한 노력과 흐름은 설교로 녹아들게 되었고, 그의 모든 설교는 차근차근 회중들을 설득시키는 매우 귀납적이고 설득적인 설교가 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웨슬리의 설교 “산상설교”에 이러한 부분이 나온다. “그대는 이런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그것을 견디어 낼까 나는 그런 시험을 견뎌낼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런 강적을 이길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사전에 공포심을 가지기도 쉽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재에는 그대에게 그대가 예상하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그런 원수의 공격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그대에게 있는 은혜로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이 온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도 동시에 올 것입니다. 더 큰 시험이 오면 더 큰 능력도 받을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도 그만큼 클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정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황에 따라 풍족할 것입니다... 내일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오늘을 사십시오. 현 시점의 개선을 위해 전력하십시오. 과거는 그대에게 아무 것도 아니며 그것은 없었던 것과 같으며 미래도 아무것도 아니며 이것도 당신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십시오. 한 시각이라도 허송하지 마십시오. 이 시각을 선용하십시오. 이것만이 그대의 것입니다.”³⁰⁾ 웨슬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포를 시작했지만, 위에서 본 인용처럼, ‘그대는... 나는 그런 강적을 이길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사전에 공포심을 가지기 쉬울 것입니다.’라고 회중이 생각하고 경험할만한 상황들을 먼저 상상해보았고, 오히려 그것을 회중에게 떠올려줌으로써 자신들의 현재 상황에 대하여 인지하도록 도움을 준

29) 케네스 콜린스/이세형 역, 『존 웨슬리 토크보기』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03), 257.

30) 조종남, 김흥기, 임승안 외, 『웨슬리 설교전집 2』, 263.

다. 그리고 ‘현재에는 그대에게 그대가 예상하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을지 모릅니다.’라는 말로써 그 상황에서 느끼게 될 좌절에 대해서도 먼저 소개해 줌으로써, 이것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인생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같은 아픔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러므로 오늘을 사십시오. 한 시각이라도 허송하지 마십시오. 이 시각을 선용하십시오. 이것만이 그대의 것입니다.’라는 말로써 이러한 좌절적인 상황에서도 분명한 해결책이 있음을 제공함으로써 웨슬리의 논리가 웨슬리에게서 끝나지 않고, 회중들의 삶으로써 받아들이는 사건, 즉 구체적인 설득이 일어나게 돕는다. 이러한 친절한 웨슬리의 설득의 작업은 웨슬리의 설교 전체에 걸쳐서 주를 이루는 설교기법으로 사용된다.

넷째, 웨슬리는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적용했던 원리 즉 후대에 의하여 이름 붙여진 ‘사변형의 신학: Quadrilateral’을 동원한 수사기법을 사용하였다. 즉 ‘성서-전통-이성-경험’의 과정을 통하여 이해되고 받아들여진 말씀을 다시 회중들에게 전할 때에도 ‘성서-전통-이성-경험’적인 4가지 측면 모두에서 설교를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이 4가지 단계를 거치기 전에 반드시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성경을 조명해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기도 하였다. “내가 읽은 것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있는가? 애매하고 혼란스런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 나는 나의 마음을 빛의 아버지에게 엽니다. 주여, 당신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당신은 기꺼이 주시며 누구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뜻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는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의 뜻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³¹⁾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

후에 웨슬리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반드시 그 무엇도 아닌 성경자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다. “교회는 성서에 근거되어야 하는 것이지, 성서가 교회에 근거되어 있지 않다... 성서는 그 자신을 해석하는 최고의 해석자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서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³²⁾ 우리가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의 다른 본문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필요한 성경본문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초대교회와 교부들과 같은 영적인 스승들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웨슬리의 설교와 그의 일기에 이미 웨슬리가 조지 위간(George Wigan), 토마스 아퀴프스(Thomas a Kempis),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 윌리엄 로우(William Law)등을 넘어서 여러 교부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증언되어 있으며, 항상 설교안에 교부들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그의 신학과 해석 안에는 교부들의 영향과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많다.³³⁾ “그렇다면 자녀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무

31)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vol.1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106.

32) Ibid., 94.

33) 웨슬리는 그의 대학시절 그라브(John Ernst Grabe, 1666-1711)의 70인역 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되는 위간(George Wigan) 교수를 사사했는데 이 만남은 웨슬리로 하여금 주석 설교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웨슬리가 신구약을 주석함에 있어 지나치리만치 성서본문을 세분하여 다루는 것은 바로 위간교수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웨슬리는 다양한 신앙 선조들의 서적을 읽었는데 가령 1726년 읽은 토마스 아퀴프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와 그로부터 1-2년 후 접하게 된 윌리엄 로우의 「그리스도의 완전」(A Serious Call to a Derout and Holy Life. A practical Treatise on Christian Perfection) 그리고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의 「거룩한 삶 원리와 실천」(The Rule and Exercises of Holy

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합니까? 이에 대한 기본이 윌리엄 로의 <경건한 삶으로의 진지한 부르심>에 잘 나타나 있는데 다음은 글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³⁴⁾ 그리고 윌리엄 로의 글을 설교 안에 인용한다. 또한 웨슬리는 4세기 동방교회의 교부였던 마카리우스에 대하여 그는 그의 청중을 언제나 감동시키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일치하도록 안내한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³⁵⁾ 그는 교부들에게서 많은 영감을 얻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었고, 그들의 성경해석을 그의 설교안으로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그러나 웨슬리는 교부들이 내린 성서해석을 성서에 준하거나 버금가는 정도로 여기지는 않았다. 반드시 그들의 해석은 성경이 본래적으로 스스로 증언하는 해석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에만 교부들의 해석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도 성서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혼자서 묵상만 할 것이 아니라, 웨슬리의 시대 이전이나 이후를 포괄하여 권위 있는 성서학자나 설교가들의 성서해석을 충분히 참고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을 시사한다.³⁶⁾ 그러나 웨슬리가 그러했듯이 성서가 스스로 증언하는 해석의 범위 안에서만 참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성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통로로 여겼다. 그러나 계몽주의가 이성에게 부여하였던 것처럼 인간의 의식영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이성을 놓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주체로 여기지는 않았고, 하나의 도구(tool)로 여겼다.³⁷⁾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인간

Life)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34) 조종남, 김흥기, 임승안 외, 『웨슬리 설교전집 5』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327.

35) 이후정, 『존 웨슬리의 역사 신학적 조명』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출판부, 1995), 136.

36) 조경철, “존 웨슬리의 성서 이해와 감리교적 성서해석의 정신”, 『신학과 세계』 49(2004), 39.

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정리하고, 맥락을 살피며, 이것을 이해하고, 나아가 누군가에게 다시 그 말씀을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은사 또는 선물로 이해하였다. 이때의 이성인 인간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타락한 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정철은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에게 성서가 말하는 믿음의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책임적인 능력이 곧 이성이다. 그러므로 성서해석에 있어서 이성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교회로 하여금 성서를 바로 이해하여 설교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³⁸⁾

마지막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말씀이 증명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이해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정재웅은 설교자를 “말씀에 복종하는 통로일 뿐이며 회중은 수동적 수용자”로만 보던 개혁신교회의 전통은 설교가 행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체험을 설명하는 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³⁹⁾ 웨슬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표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적인 증거를 주신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의 설교에는 말씀을 ‘체험’하는 것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다뤄진다. 웨슬리의 설교 ‘시대의 표적’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기독교는 오늘날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전파되고 있어서 눈에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심령으로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만족하는 동일한 종교가 사람들의 심령에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를 쉽게

37) W. Stephen Gunter, ed., *Wesley and The Quadrilateral: Renewing the Conversa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7), 77-79.

38) Ibid., 39.

39) 정재웅, “설교에서 하나님 현존의 체화된 경험”, 『신학과 실천』 73(2021), 150.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영역에서 강하고도 부드럽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⁴⁰⁾ 그의 유명한 설교 ‘믿음에 대하여 I’에서 또한 이렇게 설교한다. “마지막으로, 당신들 안에서 당신들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을 이미 체험하신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모든 선한 일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지음 받은 그 선한 일들을 행하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따르십시오.”⁴¹⁾

웨슬리가 이렇게 체험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은 그 역시 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알 듯이 그의 대표적인 체험이 바로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에서 경험한 체험이자 회심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의 전 인생을 관통하는 맥이 되었고, ‘영혼 구원의 정신’을 세워준 결정적 체험이었다.⁴²⁾ 웨슬리게 있어서 로마서 말씀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고, 나아가 수도 없이 자신의 입으로 설교한 말씀이었지만, 능력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성 안에만 머물고, 체험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이제 삶으로 실천해 내는 데에 이르게 하는 가장 완전한 통로가 되었고, 똑같은 설교를 한 것 같지만, 체험을 거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이후에 나타난 열매들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하였다. 심지어 본인도 처음에는 뜻하지 않았던 야외설교(field preaching)를 했을 때, 여러 면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무리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급속한 부흥이 시작된 것은, 장소가 야외여서가 아니라, 그가 체험이 있는

40) 조종남, 김흥기, 임승안 외, 『웨슬리 설교전집 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97.

41) Ibid., 184.

42) 정인교 “위대한 설교자 존 웨슬리”, 『홍성철 교수 정년기념 회고 논문집』, 홍성철 편집 (서울: 도서출판 세북, 2006), 398.

설교자가 되었기 때문이다.⁴³⁾ 설교자의 체험은 그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체험을 끌어내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었고, 웨슬리가 더 이상 말씀을 전달하는 설교자에서 멈추지 않고, 회중들의 리더로 발돋움하게 하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IV. 나가는 말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제 더 이상 잠시 왔다 금방 지나가는 잊혀질 손님이 아닌 것을 세계가 점점 받아들이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도 이제 변화된 새로운 세상, 즉 ‘뉴노멀(New Normal)’에 어떻게 적응하고, 나아가 리드해야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고민들을 거쳤고,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해보았다. 그러한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있었던 인터넷을 활용한 설교와 교육은, 개별적인 공간에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었다는 강력한 강점이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자신의 교회의 회중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설교를 보고 듣는 현실에서, 갈수록 설교자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특정교회의 회중들의 문제와 아픔과 질문보다 불특정 대중들을 향한 설교자로 점점 변모하고 있는 것은 개교회들의 위축과 회중들의 이탈을 더욱 가속하게 되는 무서운 단점이 되고 있다. 이것이 지속될 경우 교회의 뉴노멀은 웨슬리 시대에 영국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탈회중적인 설교와 회중의 삶과 분리된 목회자들이 빚어낸 무능력한 설교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설교와 목회로 돌아가야 하고, 웨슬리적인

43) Richard P. Heitzenrater, *Wesley and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97-99.

설교와 목회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님과 웨슬리처럼 우리는 회중사이
를 비집고 들어가, 그들의 고통과 문제위에 함께 서고, 그 안에서 구원
을 이야기해야만 한다. 고통스럽더라도 회중들과 함께 말씀을 변증해
야하며, 오래 걸리더라도 그들을 설득해내는 긴 여정을 포기하면 안
된다. 할 수만 있다면 맥클루어가 제시한 것처럼 설교를 준비하기 위
한 회중들과의 모임을 만들어, 보다 구체적인 회중들의 삶을 설교 안
으로 녹여내고, 그들의 통찰력의 도움을 얻는다면, 설교자는 보다 효
과적이고 깊이 있는 설교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⁴⁴⁾ 나아가 웨슬
리안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는 사명을
붙들어야 하며, 짧은 한 문장의 말씀이라도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
르기까지 반드시 체험을 통해 이해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나아가 스
스로를 웨슬리안이라 부르기를 원하고, 웨슬리가 경험한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최소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앞서 본론에서 언
급한 웨슬리의 설교문 작성의 원리들을 최대한으로 연습하고, 익히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웨슬리의 부흥은 능력있는 콘텐츠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를 회중에게 효과적으로 PR할 수 있게 한 매우
전문적이고 감각적인 수사학적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의 처음과 끝에는 우리는 무식하리만치 성경을 놓아서
는 안 되며, 해석과 적용을 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절대로 성경책
이 덮이게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웨슬리안들로 불리는 메소디스트
들이라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반드시 웨슬리안적
인 정신을 넘어 구체적인 전통과 핵심적인 방법들만큼은 지켜내고,
그 위에서 발전시키어, 웨슬리가 경험하고 기록한 그 내적이고도 외
적인 부흥을 다시 한 번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44) John S. McClure, *The Roundtable Pulpit: Where Leadership and Preaching Meet*,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7.

【 참고문헌 】

- 김운용. “증언의 관점에서 본 설교에 대한 신학적 이해: 토마스 룡의 설교 신학적 이해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3(2021), 93-122.
- 나광현. “포스트모던 상황에서의 설교를 위한 대화적, 협력적 소통을 통한 메시지 창안(invention)이론에 대한 연구.” 『제5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4), 229-250.
- 남모세. “존 웨슬리의 설교와 현대적 적용에 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박문석. “강해적 내러티브 설교에 대한 실천적 방향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72(2020), 143-164.
- 변영서. “십자가의 전략.” 『신학과 세계』 20(1935), 10-19.
- 알버트 아우틀러/ 조종남 역. 『웨슬리 설교해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오현철. “뉴노멀 시대 설교의 변화.” 『복음과 실천신학』 119(2020), 117-44.
- 이후정. 『존 웨슬리의 역사 신학적 조명』.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출판부, 1995.
- 정인교. “위대한 설교자 존 웨슬리.” 『홍성철 교수 정년기념 회고 논문집』, 홍성철 편, 서울: 도서출판 세북, 2006, 398.
- 정재웅. “설교에서 하나님 현존의 체화된 경험.” 『신학과 실천』 73(2021), 147-177.
- 조경철. “존 웨슬리의 성서 이해와 감리교적 성서해석의 정신.” 『신학과 세계』 49(2004), 25-51.
- 조종남, 김홍기, 임승안 외. 『웨슬리 설교전집 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a.
- _____. 『웨슬리 설교전집 5』.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b.
- _____. 『웨슬리 설교전집 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c.
- 최영현. “다문화 상황에서 이머징(교회운동) 설교의 가능성과 신학적 의미.” 『제5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4), 367-394.
- 케네스 콜린스/ 이세형 역. 『존 웨슬리 톨아보기』.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03.
- 토마스 룡/ 정장복, 김운용 역. 『증언으로서의 설교』. 서울: 쿤란출판사, 1998.
- Albert C. Outler. ed.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ed. vol. 1-4, Sermon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4-1987.
- Boraine, Alexander L. *The Nature of Evangelism in the Theology and Practice of John Wesley*. Ph.D. diss., Drew University, 1969.

- John S. McClure. *The Roundtable Pulpit: Where Leadership and Preaching Meet*.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 John Telford. *Wesley's Veterans: Lifes of Early Methodist Preachers Told by Themselves*, vol 7. Salem, Ohio: Schmul Publishers, n.d.
- John Wesley. *The Journal of the Rev. John Wesley, A. M. Edited by Nehemiah Curnock*, 8vols. London: Epworth Press, 1938.
- John Wesley. *The New Testament With Explanatory Notes*. London: Nicholson, n.d.
- John Wesley. *The Works of John Wesley*, vol.1. Nashville: Abingdon Press, 1984.
- John Wesley. *Wesley's Standard Sermons*, ed. and annotated by Edwin H. Sugden, 3rd. ed., 2vols. Nashville: Lamer and Varten, n.d.
- Lloyd-Jones, D. M. *Romans: An Exposition of Chapter 3:20-4:25, Atonement & Justification*. Grand Rapids: Ministry Resources Library, 1970.
- Richard P. Heitzenrater. *Wesley and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 Rupert E. Davies.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ed.*, vol. 9, *The Methodist Societies: History, Nature and Design*. Nashville. TN: Abingdon, 1989.
-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U.S.A.).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 in *The Book of Confession, pt. 1,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Louisvill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Presbyterian Church USA, 2002.
- Thomas G. Long. *The Sense of Preaching*. Atlanta: John Knox Press, 1988.
- W. Reginald Ward and Richard P. Heitzenrater. eds. *The Works of John Wesley, Bicentennial*, vol. 19, *Journals and Diaries IV*.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2.
- W. Stephen Gunter. ed. *Wesley and The Quadrilateral: Renewing the Conversation*.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7.

【 Abstract 】

A Study on Preaching of Wesleyan
in the View of Homiletics

Nam, Mo Se

Covid-19 became rather the foundation and basic situation to live with than a disease which is going to be gone away a little later. It changed not only every pattern at the work places and schools but every pattern at the church managing, preaching, the structures and tools of evangelizing people as well. Many new ways and plans applied to cope with these radical changes which are made without enough preparing studies and trials caused so many mistakes and problems in every field. This study focuses on the phenomenon that the more preachers are getting more concerned with the other congregations or non-christians who show their likes or criticism to their preachings posted on websites than the local congregations delegated to the preachers. In this way, these kinds of the preachers are getting lost of the given-standard for preachings. For this situation, this study would look into the coping plan which the right view and direction of Wesleyan for the people who want to be called as the Methodists want to say as the answer. As we look into Wesley with his sermons and journals, I see Wesley as the preacher of a congregation-centered and a deductive topical preacher. Wesley tends to find the topic for the sermon from the life of the congregation and the structure of his sermon is very highly analytic and logical. When he tries to draw an understanding for the essence of the topic and gives a conclusion, he always has used the Bible verses in a view of soteriology. At the part the conclusions, he usually put the actual spiritual experiences and the pastoral concerns with how to apply this sermons to the life of congregations. Thomas

Long has mentioned some metaphors to talk about the theological meaning on practical preaching. In modern age, the metaphor of ‘storyteller’ has been accepted as an much effective way. However, I would assert that the people, especially the methodists, has to find the image of ‘pastor metaphor’ back or at least they have to replenish with it. This will give restoration of the pure wild nature of the methodist and will be the way to experience the inner recovery and outer revival back which Wesley has experienced.

Key Words: Covid-19, New Normal Era, Wesleyan, Inductive topical Preaching, Congregation-centered preaching